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72)

제3부: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12 (2)96사단 주둔지-(11)열안지오름
"갱도는 죽음의 공간이자 무덤"

입력 : 2007. 07.05. 00:00:00



▲취재팀은 열안지 오름 하단부에서 숨겨진 갱도를 찾아냈다. 갱도는 나뭇가지 등으로 입구를 막아놓은 상태였다. 앙상하게 말라버린 나뭇가지 틈새를 이용해서 내부로 들어가자 갱도는 하향 전개되고 있었다.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열안지오름 발견 갱도내부 소빨 생생

전쟁이 남긴 상처 아물지 않은채 진행

62년 전 일본군이 파놓은 갱도진지는 아픈 역사현장으로만 다가서는 것이 아니다. 전쟁야욕이 빚어낸 어두컴컴한 공간은 때로는 죽음의 공간이자 그 자체가 무덤이 되기도 한다. 취재팀이 집중보도한 제주시 별도봉 일본군 갱도의 사례는 대표적이다.

갱도는 동물들에게도 두려운 존재다. 갱도에 한번 빠지는 순간 그 자체가 곧 죽음이다. 사람들이 밖으로 꺼내지 않는 한 그 안에서 서서히 생명력이 소진된다. 취재팀은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목격했다.

검은오름에 이어 취재팀이 찾은 열안지오름(列雁地岳 · 제주시 오라2동 산97번지 일대 · 표고 113m)도 전쟁이 남긴 살벌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기러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닮았다는 데서 이름 붙여진 열안지오름 정상부에서 보면 제주시가지가 동서로 활짝 열려있는 모습이 선연하다. 취재팀은 이곳 오름 하단부에서 숨겨진 갯도를 찾아냈다. 갯도는 나뭇가지 등으로 입구를 막아놓은 상태다.

양상하게 말라버린 나뭇가지 틈새를 이용해서 내부로 들어가자 갯도는 하향 전개된다. 진입부 바닥은 빗물이 유입되는 과정에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드러난 잔자갈로 울퉁불퉁하다.

갯도는 진입가능한 부분만 약 20여m 된다. 하지만 갯도는 죽 연결되고 있었다. 밀려든 토사로 인해 진입을 할 수 없지만 통로가 이어진 것이 선명하게 보인다. 끝을 가늠할 수 없어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당초에는 꽤 큰 규모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정작 취재팀이 놀란 것은 갯도 안의 또다른 풍경에 있었다.

갯도 바닥 위로 날카롭고 묵직하게 두 가닥의 소뿔이 솟아 있었던 것이다. 몸체는 잠긴 채 매끄러운 유선형으로 랜턴 불빛 아래 드러난 소뿔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위압적이다. 주변 정황으로 미뤄 몸체는 밀려든 토사가 바닥에 쌓이면서 잠긴 듯 했다.

소는 머리 방향이 입구 쪽을 향해 있다. 아마도 갯도 안에 빠진 후 빠져나가려고 몸부림 치다가 서서히 죽어간 것으로 보인다. 처절한 울부짖음이 갯도 안을 울리는 것 같은 느낌에 섬찟한 기운이 엄습했다.

열안지오름에서는 또다른 함몰된 갯도흔적이 2~3곳을 더 볼 수 있다.

열안지오름은 노루손이와 삼의양오름이 중간지점에 있다. 맑게 개인 날 정상부에서 남쪽을 향해 보면 제주시가지와 일대 오름이 그림처럼 다가오는 곳이다.

오름 능선을 관통한 갯도가 구축된 검은오름, 제주시 서부권의 주저항진지대인 상여오름 광이오름 남조봉 민오름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사라봉 별도봉 원당봉이 횡으로 펼쳐져 있다. 남쪽으로는 최후의 복곽진지로 58군사령부 주둔지였던 어승생악이 달려들듯 서있다. 제96사단 사령부 주둔지인 산천단과 삼의양오름 역시 지척이고, 도로망도 연결돼 있다. 오름의 남서쪽 기슭에는 '열안지못'이 있어 물을 얻기에도 용이한 곳이다.

열안지오름은 입지상으로나 여건상 대규모 병력이 주둔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다. 일본군이 작성한 군사지도인 '제58군배비개견도' 등을 보면 이 곳에는 제주시 산천단 일대 제96사단 예하의 292연대나 혹은 난지농업연구소 일대에 주둔했던 294연대 병력 중 일부가 파견돼 갯도 등을 구축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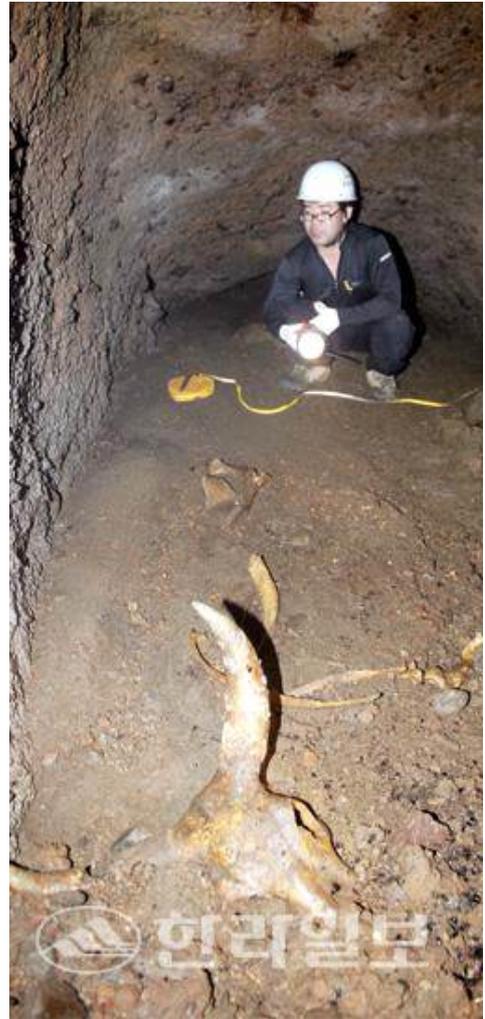
하지만 열안지오름의 갯도는 산천단 일대나 제주시 서부지역의 주저항진지대에 비해 소규모다. 갯도 구축 정도로 볼 때 열안지오름은 '주저항진지' 보다는 '위장진지' 등의 성격을 지니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열안지오름의 갯도는 일본군이 제주도를 무대로 최후의 전쟁을 위해 구축해놓은 갯도가 남긴 상처와 후유증을 극명히 보여주는 곳 중의 하나다. 그 상처는 전쟁이 끝난 지 60여년이 흘렀음에도 아물지 않은 채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열안지 오름 하단부에 숨겨진 갯도 바닥 위로 날카롭고 묵직하게 솟아나 있는 두 가닥의 소뿔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취재팀의 모습.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